

# 예비 특수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정도

## Pre-service Special Teachers' Knowledge about ADHD

강민채

중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Min-Chae Kang(1urianna@joongbu.ac.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및 전라도에 위치한 J대학과 W대학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ADHD에 대한 지식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지를 통해 조사는 이루어졌으며 분석에는 ANOVA, t-test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ADHD 경과 및 치료'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ADHD 원인에 대한 지식'에서 제일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ADHD에 대한 지식정도는 학년, 전공,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ADHD아동 접촉 경험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DHD에 대한 지식정도는 성별과 교육실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예비 특수교사들을 위한 ADHD 관련 지식 습득에 대한 교육 필요성과 교수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ADHD | 지식 | 예비 특수교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level about ADHD in 207 of J and W universities special education students in Gyeonggi and Jeolla provinces. Data were gathered by using a survey method. To analyze data, statistical methods such as ANOVA and t-test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e highest rate of correct answers in 'progress and treatment of ADHD' and the lowest rate of 'knowledge in the cause of ADH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ADHD is found to be different among the groups according to grade, major, experience with ADHD children and experience of taking related ADHD courses.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ADHD don't differ according to gender and educational pract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the necessity of acquiring knowledge about ADHD for pre-service special teachers and how to improve their teaching program for ADHD children.

■ keyword : | ADHD | Knowledge | Pre-service Special Teachers |

## 1. 서론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대상, 중학교는 1학년 대상, 고등학교도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들에게는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접수일자 : 2018년 08월 07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28일

교신저자 : 강민채, e-mail : 1urianna@joongbu.ac.kr

학생정신건강 검진 선별척도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검사를 포함하여 ADHD를 조기 선별하여 보고하고 있다[1].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DSM-5(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준거에 제시된 ADHD의 행동 또는 증상은 부주의로 과제 또는 활동 시 주의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으로 차례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등을 포함하고 있다. ADHD 증상 중 몇몇 행동은 아동기 초기 즉, 12세 이전에 나타나고, 이 증상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난다[2].

ADHD를 가진 학생은 또래와의 우정을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동반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학교생활 안에서 ADHD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며 그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곳이기도 하다[3]. 또한 ADHD 청소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업 성취 영역에서의 문제와 반사회적 행동은 성인기에도 여전히 보인다. 이러한 성인 가운데 1/3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성인의 경우 40%가 대학을 마치는데 비해 ADHD 성인의 경우 단지 5%만이 대학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렇듯 ADHD는 주로 12세 전후의 학령기에 선별되어지며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선별, 조기교육, 학교 차원의 교육적, 행동적 중재, 약물치료, 가족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 한다. 따라서 이들 아동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DHD 아동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이 요구된다[5].

ADHD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학령기 아동 중 3~7%를 ADHD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통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 3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2].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정신건강 검진사업’에서 시행하는 선별 검사에서 ADHD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증가하

고 있으나 ADHD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 및 행동장애로 판별 받지 못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중 충동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등 ADHD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상당수 있으며, 심각성의 정도가 미미하여 기준에 미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6].

학교에서 ADHD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수행성취와 행동수정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ADHD를 가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이해는 ADHD 학생에 대한 중재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ADHD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ADHD 학생을 다루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중재방법 및 교육방법에 대한 지식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8][9].

ADHD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교사들이 ADHD 학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에 불평을 하고 있다. 교사들 또한 ADHD 학생을 교육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ADHD 아동을 판별하고 가르치며 관리하기 위한 교사 연수가 일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ADHD 아동을 교육하는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짧은 시간 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10].

교사들은 ADHD 아동 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ADHD 아동들을 위한 개별화교육과정 실행과 ADHD 아동을 위한 중재방법 및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미흡함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ADHD 학생이 보이는 행동특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중재방안이나 학습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교사들이 현장에서 ADHD 아동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11].

따라서 일반교사들은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ADHD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기 보다는 일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교사도 ADHD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예비특수교사 대상으로 ADHD에 대한 이해와 교수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식은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특수교사들의 ADHD에 대한 지식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향후 예비 특수교사들을 위해 ADHD와 관련된 지식 습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교수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정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HD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의 지식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ADHD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의 변인에 따라 지식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및 전라도에 위치한 J대학과 W대학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 207명이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207명이다. 남학생 62명(30.0%), 여학생 145명(70.0%)이며, 1학년 41명(19.8%), 2학년 41명(19.8%), 3학년 85명(41.1%), 4학년 40명(19.3%)이다. 전공별로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이 60명(29.0%), 초등특수교육 전공이 68명(32.9%), 중등특수교육 전공이 79명(38.2%)이다. 교육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62명(30.0%), 미이수 학생은 145명(70.0%)이다. ADHD 아동에 대한 관심을 묻는 문항에 ‘관심 없는 편이다’이 59명(28.5%), ‘관심 있는 편이다’ 132명(63.8%), ‘매우 많다’ 16명(7.7%)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을 접촉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 ‘접촉 경험 없음’이 105명

(50.7%)이며, ‘접촉 경험 있음’ 102명(49.3%)으로 나타났다. ADHD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교과목 수강 여부를 묻는 문항에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80명(38.6%),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27명(46.1.4%)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N	%	계
성별	남	62	30.0	207 (100.0)
	여	145	70.0	
학년	1학년	41	19.8	207 (100.0)
	2학년	41	19.8	
	3학년	85	41.1	
	4학년	40	19.3	
전공	유아특수	60	29.0	207 (100.0)
	초등특수	68	32.9	
	중등특수	79	38.2	
교육실습 이수여부	이수	62	30.0	207 (100.0)
	미이수	145	70.0	
ADHD아동 접촉 경험 여부	없음	105	50.7	207 (100.0)
	있음	102	49.3	
ADHD아동 관련 수업 이수 여부	없음	80	38.6	207 (100.0)
	있음	127	61.4	

### 2. 연구도구

ADHD 교육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들의 지식 측정 도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강민채, 박현주[12]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ADHD의 원인, ADHD 아동의 행동 특성, ADHD의 경과 및 치료 등 ADHD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완성된 척도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박사 3명에게 내용구성에 대한 타당도를 의뢰했다. ADHD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은 ‘잘 모르겠음’, ‘아니다’,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잘 모르겠다’ 또는 오답으로 응답한 문항은 0점, 정답은 1점으로 채점되며 최고 37점에서 최저 0점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과 문항 간 응답자의 신뢰도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의 영역별 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ADHD에 대한 지식	ADHD 아동의 행동 특성	24	.844
	ADHD의 원인	4	
	ADHD의 경과 및 치료	9	

### 3. 연구절차

먼저 본 연구자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및 중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유의사항으로 설문지에 응답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직접 설문문이 어려운 타 전공 및 타 대학의 경우 전공담당 교수 또는 특수교육과 학과장에게 유선 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후, 우편으로 전공담당 교수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2주 후 작성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한가지 번호에만 표기한 것, 이중 표기한 것, 응답이 누락된 문항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 4. 자료분석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예비 특수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응답률과 응답자수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변인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t-test, 사후검증 방법인 Tukey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예비 특수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 정도

#### 1) ADHD에 대한 지식 정도

ADHD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의 지식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ADHD에 대한 지식 정도

	n	Min	Max	M	SD
행동특성	207	0	23	14.88	5.031
원 인	207	0	4	1.19	1.056
경과 및 치료	207	0	9	5.85	1.845
전 체	207	2	32	21.91	6.316

ADHD에 대한 전체 지식의 정도는 평균 21.91이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9.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ADHD 경과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평균 5.85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ADHD 원인에 대한 지식정도는 평균 1.19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9.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ADHD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지식 정도

ADHD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의 지식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ADHD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지식 (n=207)

	설문문항	정답 (%)	오답 (%)
1	ADHD는 아동이기 및 학령기 아동의 대부분이 겪는 정서장애이다.	90 (43.5)	117 (56.5)
2	ADHD 아동은 주의집중이 힘들고 주의집중 시간이 매우 짧다.	200 (96.6)	7 (3.4)
3	ADHD 아동은 분노, 좌절, 슬픔, 기쁨 등의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도 일반아동보다 더 강하게 표출한다.	170 (82.1)	37 (17.9)
4	ADHD 아동은 우울하거나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다.	85 (41.1)	122 (58.9)
5	ADHD 아동은 교실의 규칙이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108 (52.2)	99 (47.8)
6	ADHD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만 공격성은 없다.	137 (66.2)	70 (33.8)
7	ADHD 아동은 지능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130 (62.8)	77 (37.2)
8	ADHD 아동은 쉽게 좌절한다.	85 (41.1)	122 (58.9)
9	ADHD 아동은 산만함과 충동성은 외부 자극과 상관없다.	25 (12.1)	182 (87.9)
10	ADHD 아동은 고집을 항상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기려 한다.	70 (33.8)	137 (66.2)
11	ADHD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156 (75.4)	51 (24.6)
12	ADHD 아동은 자기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52 (73.4)	55 (26.6)
13	ADHD 아동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렵다.	165 (79.7)	42 (20.3)
14	ADHD 아동은 쉽게 화를 잘 낸다.	129 (62.3)	78 (37.7)
15	ADHD 아동은 도전적이고 공손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다.	86 (41.5)	121 (58.5)
16	ADHD 아동은 과제를 제시시간에 끝내기 어렵다.	161 (77.8)	46 (22.2)
17	ADHD 아동은 감정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	157 (75.8)	50 (24.2)
18	ADHD 아동은 또래와 관계 맺기가 곤란하여 잘 지내기 힘들어 한다.	129 (62.3)	78 (37.7)
19	ADHD 아동은 쓸데없이 말이 많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한다.	130 (62.8)	77 (37.2)

20	ADHD 아동은 계속 안절부절 하면서 앉은 자세를 바꾼다.	168 (81.2)	39 (18.8)
21	ADHD 아동은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즉시 반응한다.	146 (70.5)	61 (29.5)
22	ADHD 아동은 충동성이 강하다.	181 (87.4)	26 (12.6)
23	ADHD 아동은 시끄럽게 웃거나 울음을 참지 못한다.	120 (58.0)	87 (42.0)
24	ADHD 아동은 물건을 잘 부서거나 노는 모양이 항상 위험해 보인다.	100 (48.3)	107 (51.7)

3) ADHD 원인에 대한 지식 정도

ADHD의 원인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의 지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ADHD의 원인에 대한 지식 (n=207)

설문문항	정답 (%)	오답 (%)
ADHD는 유전과 관계가 있다.	54 (26.1)	153 (73.9)
ADHD는 뇌의 문제로 인해 생긴다.	87 (42.0)	120 (58.0)
ADHD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9 (18.8)	168 (81.2)
ADHD는 교사 및 교육환경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66 (31.9)	141 (68.1)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ADHD는 뇌의 문제로 인해 생긴다’는 문항의 정답률이 42.0%로 가장 높았고, 반면 ‘ADHD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문항이 81.2%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4) ADHD의 경과 및 치료에 대한 지식 정도

ADHD의 경과 및 치료에 대한 예비 특수교사의 지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문항별로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ADHD 치료에는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는 문항의 정답률이 87.0%로 가장 높았고, ‘ADHD 약물치료만으로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문항의 정답률이 86.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ADHD 아동은 반드시 특수교육 서비스나 특수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문항이 83.1%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표 6. ADHD의 경과 및 치료에 대한 지식 (n=207)

설문문항	정답 (%)	오답 (%)
ADHD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169 (81.6)	38 (18.4)
ADHD의 특성 중 과잉행동은 청소년기에 많이 호전되지만 주의력결핍은 오래 지속된다.	108 (47.8)	99 (52.2)
ADHD는 학습부진, 우울-불안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및 청소년 비행과 관련성이 적다.	145 (70.0)	62 (30.0)
ADHD는 발달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176 (85.0)	31 (15.0)
ADHD의 약물치료는 별로 효과가 없다.	148 (71.5)	59 (28.5)
ADHD는 약물치료만으로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	179 (86.5)	28 (13.5)
ADHD의 치료에서 약물없이 비약물요법(인지치료, 사회성 훈련, 심리치료 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70 (33.8)	137 (66.2)
ADHD의 치료에는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180 (87.0)	27 (13.0)
ADHD 아동은 반드시 특수교육 서비스나 특수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35 (16.9)	172 (83.1)

2. 예비 특수교사의 변인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1.791, p > .05$ ).

표 7. 성별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구분	성별	N	M	SD	t
행동 특성	남자	62	13.82	5.971	-1.783
	여자	145	15.33	4.519	
원인	남자	62	1.16	1.089	-.241
	여자	145	1.20	1.045	
경과 및 치료	남자	62	5.56	2.200	-2.286
	여자	145	5.97	1.661	
지식 전체	남자	62	20.55	7.773	-1.791
	여자	145	22.50	5.508	

2) 학년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학년에 따라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8.727, p < .001$ ).

표 8. 학년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구 분	집 단	N	M	SD	F	p	Tukey
행동 특성	1학년 a	41	12.61	4.979	5.061**	.002	a< c,d
	2학년 b	41	14.22	5.641			
	3학년 c	85	15.58	4.893			
	4학년 d	40	16.40	3.842			
원인	1학년	41	.95	1.048	3.258*	.023	a< d
	2학년	41	1.00	1.118			
	3학년	85	1.20	1.078			
	4학년	40	1.60	.841			
경과 및 치료	1학년 a	41	4.63	2.046	9.045***	.000	a< b,c,d
	2학년 b	41	5.78	2.208			
	3학년 c	85	6.22	1.507			
	4학년 d	40	6.35	1.292			
지식 전체	1학년 a	41	18.20	6.100	8.727***	.000	a< c,d
	2학년 b	41	21.00	7.190			
	3학년 c	85	23.00	5.819			
	4학년 d	40	24.35	4.748			

\*p< .05, \*\*p< .01, \*\*\*p< .001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ADHD의 원인(F=5.061, p>.01)’, ‘ADHD의 행동특성(F=3.258, p<.05)’, ‘ADHD의 경과 및 치료(F=9.04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Tukey를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 전체 지식 정도에서는 3,4학년이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ADHD의 행동특성’에선 3,4학년이 1학년보다 높으며, ‘ADHD의 경과 및 치료’에선 2,3,4학년이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ADHD의 경과 및 치료’에선 3,4학년이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3) 전공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전공에 따라 알아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743, p>.05).

표 9. 전공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구 분	집 단	N	M	SD	F	p	Tukey
행동 특성	유아 특수 a	60	16.10	4.181	3.064*	.049	a>b
	초등 특수 b	68	13.93	5.530			
	중등 특수 c	79	14.77	5.041			
원인	유아 특수 a	60	1.40	1.045	1.719	.182	
	초등 특수 b	68	1.09	.973			
	중등 특수 c	79	1.00	1.121			
경과 및 치료	유아 특수 a	60	6.25	1.743	4.147*	.017	a>b
	초등 특수 b	68	5.35	7.867			
	중등 특수 c	79	5.96	1.829			
지식 전체	유아 특수 a	60	23.75	5.290	4.743*	.010	a>b
	초등 특수 b	68	20.37	6.736			
	중등 특수 c	79	21.85	6.367			

\*p< .05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ADHD의 원인(F=3.064, p>.05)’, ‘ADHD의 경과 및 치료(F=4.14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Tukey를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 전체 지식 정도에서는 유아특수전공집단이 초등특수전공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ADHD의 행동특성’에선 유아특수전공집단이 초등특수전공집단보다 높으며, ‘ADHD의 경과 및 치료’에서도 유아특수전공집단이 초등특수전공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4) 교육실습 이수여부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교육실습 이수여부에 따라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 1.528, p >.05).

표 10. 성별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구 분	이수여부	N	M	SD	t
행동 특성	이수	62	15.39	4.495	1.010
	미이수	145	14.66	5.243	
원인	이수	62	1.35	.943	1.487
	미이수	145	1.12	1.096	
경과 및 치료	이수	62	6.13	1.420	1.655
	미이수	145	5.72	1.991	
지식 전체	이수	62	22.87	5.582	1.528
	미이수	145	21.50	6.581	

5) ADHD 아동 접촉경험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ADHD 아동 접촉경험에 따라 ADHD에 대한 지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다음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565, p > .05$ ). 그러나 하위영역 중 경과 및 치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749, p < .05$ )

표 11. ADHD 아동 접촉경험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구 분	접촉경험	N	M	SD	t
행동 특성	없음	105	14.59	5.385	-.837
	있음	102	15.18	4.647	
원인	없음	105	1.14	.985	-.629
	있음	102	1.24	1.127	
경과 및 치료	없음	105	5.50	2.053	-2.749*
	있음	102	6.20	1.535	
지식 전체	없음	105	21.24	6.918	-1.565
	있음	102	22.61	5.580	

\* $p < .05$

6)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ADHD에 대한 지식의 차이

구 분	이수여부	N	M	SD	t
행동 특성	미수강	80	13.51	5.576	-3.015**
	수강	127	15.74	4.467	
원인	미수강	80	.96	1.024	-2.473*
	수강	127	1.33	1.055	
경과 및 치료	미수강	80	5.35	1.943	-3.044**
	수강	127	6.16	1.716	
지식 전체	미수강	80	19.83	6.733	-3.903** *
	수강	127	23.23	5.682	

\* $p < .05$ , \*\* $p < .01$ , \*\*\* $p < .001$

예비 특수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3.903, p < .001$ ). 하위영역별로도 ADHD의 행동특성( $t=-3.015, p < .01$ ), ADHD의 원인( $t=-2.473, p < .05$ ), ADHD의 경과 및 치료( $t=-3.044,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 특수교사의 ADHD에 관한 지식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특수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 정도는 ‘ADHD 경과 및 치료’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ADHD 원인에 대한 지식’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결과는 현직 교사대상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 ADHD 아동에 대한 교사의 지식정도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ADHD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3][14]. 예비 유아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정도와 교수 효능감 연구에서도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교사들에게 ADHD 특성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이루어지지 않아 ADHD 학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되고 ADHD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에 ADHD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특수교

육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 특수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 정도는 변인에 따라 학년, 전공, ADHD 아동 접촉 경험, 관련 교과목을 수강했는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DHD에 대한 지식정도는 성별과 교육실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특수교사들의 ADHD에 대한 지식은 학년이 올라가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ADHD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실습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ADHD 아동 대부분은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일반학생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교사인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전공학생이 교육실습기간에 ADHD 아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ADHD에 대한 특성이나 교육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ADHD 아동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교수효능감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6][11][16]. 교사들을 대상으로 ADHD와 관련된 연수 경험에 따라 ADHD 지식의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ADHD 아동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9][17]. 따라서 ADHD 아동들과 관련된 잠재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ADHD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교육방법으로 ADHD 아동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은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ADHD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ADHD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교육 보다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ADHD와 관련된 내용을 일반교사, 특수교사, 예비특수교사 간의 지식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고, 학급 운영과 수업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먼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듯 ADHD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은 모든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가들에게도 필요하며 예비교사들에게는 교사자격증을 받기 이전에 사전교육 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10]. 이러한 교육은 ADHD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수 및 행동 관리 전략을 실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ADHD 학생을 모든 교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ADHD에 대한 교사 교육은 교사들에게 일관적으로 ADHD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강민채, 백종남, “ADHD 경향 학생을 위한 교사의 교수적 지원 실행 및 그 영향 변인,” 학습장애연구, 제13권, 제1호, pp.1-26. 2016.
-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uthor, 2013.
- [3] 송현종, 양승갑, *ADHD 학생의 이해와 지도*, 학지사, 2014.
- [4] R. A. Barkley, K. R. Murphy, and M. Fischer, *ADHD in adults: what the science says*, New York: Guilford Press, 2008.
- [5] 강민채,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ADHD 아동의 지원 모형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570-578, 2017.
- [6] 김태은, 정구향, 노원경, 정은주, 서영진, 김의정,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초등학생 지원을 위한 수업 전략과 학습환경 설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수보고서 시리즈 4, 2013.
- [7] T. Topkin, N. V. Roman, and K. Mwaba,



“Attention Deficit Disorder(ADHD): Prim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of symptoms, treatment and managing classroom behaviour,” South African Journal of Education, Vol.35, No.2, pp.1-8, 2015.

- [8] 김원미, 조윤경, “보육교사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아 선별 행동 특성과 지원 실태 및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19-139, 2015.
- [9] 배은경, “초등교사의 ADHD,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교사연수에 대한 인식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9권, 제3호, pp.433-457, 2013.
- [10] 김동일, *ADHD 학교상담 원서3판, ADHD in the Schools (3rd ed.)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George J., Dul Paul., Gray Stoner 공저, 학지사, 2016.
- [11] 강민채, 박현주, “ADHD 아동교육에 대한 일반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지각 수준,” 발달장애연구, 제18권, 제1호, pp.1-22, 2014.
- [12] 강민채, 박현주, “일반초등교사의 ADHD 관련 지식 및 ADHD아동교육에 대한 효능감,”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pp.455-475, 2014.
- [13] 정종성, 최진오, “초등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수준, ADHD아동 통합에 대한 태도 및 생활지도방법 활용에 대한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3호, pp.371-393, 2010.
- [14] 황순영, “통합학급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분석,” 통합교육연구, 제3권, 제2호, pp.107-124, 2008.
- [15] 박현주, 권이정, “예비 유아교사의 ADHD에 대한 지식 정도와 교수 효능감,”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103-126, 2018.
- [16] 강경림, 김영혜, 양영옥,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의 지도실태와 지식,” 아동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36-144, 2011.
- [17] 이미아, “통합교육 지원 컨설팅에 대한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통합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1-22, 2014.

저 자 소 개

강민채(Min-Chae Kang)

정회원



- 2002년 2월 : 우석대학교 생물학과(이학사)
- 2004년 8월 :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석사)
- 2008년 8월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박사)

▪ 현재 : 중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특수교육, 행동수정, 교육공학